

교직원 무한경쟁시대 도래

과장급 팀장 대거 발탁 ... 능력·실적 위주의 인사

지난달 우리학교의 '108 프로젝트'와 교직원 연봉제 도입이 대학사회의 혁신 바람으로 크게 주목받는데 이어, 새로운 직원인사시스템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지난달 27일 단행됐다.

가장 큰 특징은 팀장 6명을 입사 10년 차 인력의 5급 직위로 바꾸는 성과 위주의 인사 혁신이다. 그동안 3, 4급 직원들에게 주어졌던 팀장 보직을 5급 직원들에게도 열어 놓음으로써, 연공서열이 아닌 개인의 실질적인 역량과 성과에 따라 팀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 새로운 변화다. 반대로 2~4급의 고위직급 중에서는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위치가 변동된 직원도 있었다.

따라서 팀장 평균 연령대도 5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내려갔다. 제도상으로는 5급까지 팀장 보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급에서 팀장이 대거 발탁되는 처음이다. 신설된 CS경영팀 팀장으로 발탁된 35세의 박서진 과장도 최연소 여성팀장으로서 주목받았다. 이번 인사는 팀장을 희망하는 직원에 인터넷으로 지원하면 직속 본부장이 적합 여부를 판단, 1명을 추천하고 총장·부총장·경영관리실장·운영지원본부장으로 구성된 인사심의기구가 최종 결정

해 선발하는 방식의 새 직원인사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우리학교는 앞으로 상급자·동료·하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와 승진추천위원회를 활용하는 한편 직원들의 전공·경력·교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직원인사 역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실적을 인사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능력'은 상급자, 동료, 하급자 평가를 담은 360도 다면평가로, '실적'은 행정기평평가와 개인실적평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총장은 "지금까지 대학 인사제도는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 대다수 직원이 복지부동하고 즐서기에 열중했는데 이번 인사로 그런 관행이 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된 팀장들은 1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면도입하는 연봉제로 개인평가 뿐만 아니라 팀 평가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초 올해와 같이 희망부서를 신청 받아 능력중심의 인사를 단행할 계획

이라 성과를 내기 위한 팀장과 팀원 간, 팀과 팀 간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주 인사단행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 간 인수인계와 본관 공사가 진행돼, 이번주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각 본부, 팀으로 정상 운영된다.

이주현 기자
nitate@dongguk.edu

학생들을 위한 본관 이용 tip

본관 3층에 위치한 학생서비스팀에서는 학생기구를 비롯한 학생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학생증과 각종 증명서 업무, 장학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봉사관련 문의는 본관2층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됐다.

학생경력개발원에는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가 신설돼 기존 여학생실 업무를 맡는다.

본관 3층에 위치해있던 입학처 입학관리실은 학술관으로 옮겨졌다.



"차차차! 신나요" ... 지난 27일 동아리연합회(회장=김은진·중문3) 주최로 2007 동아리박람회 진행되었다. 팔정도에서는 11시부터 3시간동안 SSD 등 9개 동아리가 공연을 했고 만해광장과 학생회관 앞에서는 많은 동아리들이 홍보부스를 차려놓고 신입생을 모집했다.

제227차 이사회 열려 총 10개 안건 결의

제227차 이사회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직인사 총 11명중 9명이 참석했다.

강릉에 위치한 학교소유 토지의 측정지 변경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감소 사항이 보고됐고, 이 중 일부가 도로공사로 인한 대피시설로 사용되면서 이에 따른 용도변경 및 처분(수용)에 관한 안건이 결의됐다.

또한 지난해 해임직계가 결정된 교원에 대해 대법원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교원확보증 증대를 위한 비정년트랙 교원채용 △직원 재심위원회 참여위원 변경 △경주병원 고가장비 시설대여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했다.

계속되는 등록금 대립 이번주 중 결정될 듯

교 총장과 학생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 총장은 "인상분의 직접적인 환불보다는 장학금 수혜확대와 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쪽이 학업분위기가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장학금의 확대나 단과대 행사 지원 같은 환원방식은 수혜자가 한정돼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등록금 환불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학생회는 문화·복지 사업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 수치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혜택 외에 0.7~1.5%의 등록금 환불, 강좌별 수석장학 수혜액 100% 인상과 학생 복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과 환불에 관한 문제는 이번 주 중 학교와 학생대표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방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달 내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지난달 22일 열린 3차 원탁회의.

생협 창립 3주년 기념행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생협 법인 창립3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6일까지 각 매점에서 나눠주는 응모권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경품은 △트북등(2명)=실크로드 불교문화유적답사 △1등(1명)=일본 배낭여행 4박 5일 △2등(1명)=Mp3 △3등(10명)=5천원권 복사카드 △4등(75명)=1G USB, 1만원 할인권 2매, 명함 무료제작, 증명사진 촬영권, 배낭여행 서적 등이다. 단, 경품행사 당첨자는 생협 조합원만이 가능하다.

한편 매점은 과자, 음료, 유제품 할인행사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하며 상륙된 앞에

서는 인문사회과학 연합출판사 신간서적을 할인가격에 판매한다.

제1439호 3월 13일자 신문에서 3월 1일자 보직인사 발령 기사 중 '한의과대학부속경주한방병원장=윤종화(한의학)'을 '한의과대학장 겸 한의과대학부속경주한방병원장=김정현(한의학)' △한의과대학부속분당한방병원장=김경호(한의학)'으로 정정합니다.

본사사령

◇ 면기자
▲ 신용우(문과대 사학2)
- 이상 4월 2일자

서울캠퍼스 교원보직 인사발령

직제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다. 다음은 교원보직 인사발령 내용이다.

△여성커리어개발센터장=이신열(가정교육) △학생상담센터장=조상식(교육학)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교육부장=윤현숙(영어영문학)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교육부장=박광현(국어국문학) △동국포스트 부주관=김성중(영어영문학) △문화학술원장=황종연(국어국문학)

△불교문화연구원장=강문선(선학) △생명과학연구원장=박정극(생명·화학공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장=박형무(전자공학)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종대(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이상 3월 19일자)

다음은 직제 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인사내용이다. △학사부총장 겸 대학원장=한진수(회계학) △국제교육원장

겸 국제화추진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 △전략기획본부장=이형우(행정학) △학사지원본부장=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 △사업개발본부장=곽노성(국제통상학) △운영지원본부장=백경선 △경영관리실장=조의연(영어영문학) △산학협력단장=박형무(전자공학)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취업지원센터장=조홍영(물리학) △캠퍼스기획단장=김홍일(건축공학) △학사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중권(수학교육)(이상 4월 1일자)
▶2면에 계속

3면 오영교 총장 인터뷰

5면 대학생과 건강·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8면 김정근 아나운서 인터뷰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저 학생 참 괜찮다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4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전체일시 4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원서내부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청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커버스토리

고시준비, 구직난 탈출 위한 비상구인가

경영학과 2학년 이 모군은 오늘도 학교에 가는 대신 오전 7시에 고시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이번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행정고시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대학가에 붐고 있는 고시열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7·9급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임용고사 등의 대부분 국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려는 학생이 많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고시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 없이 각종 고시로 전향 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4면에 계속

관련지면 4면 커버스토리면
- 우리학교 고시준비반 운영 현황
- 고시열풍 속 우리들의 자화상

고시준비, 구직난 탈출 위한 비상구인가

고시준비, 구직난 탈출 위한 비상구인가

당신의 지도교수님은 누구입니까?

학생과 교수간의 거리 좁혀져야

경영학과 2학년 A양은 최근 수업 들으며 자신이 전공 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데에 경영학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경영학과를 지원했지만 전공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친한 선배들로부터 전공공부와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동기들도 있지만 400여명의 신입생이 4개의 전공공으로 나뉘는 경영학부에선 A양처럼 학과 생활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학업에 관한 의문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학생 본인의 학업지도교수가 아닐까.

신입생과 재학생을 막론하고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대학생활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지식이나 학문을 접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스스로 학업이수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의 막막함 때문이다. 이런 고민은 과거 학과제가 수순화된 때 학과 행사 등에서 교수,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됐지만 지난 1996년 각

대학들이 학부제를 도입한 이래 상황은 달라졌다. 학생-교수-교수로 연결되던 관계가 해제되면서 학생과 교수간의 교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 대학의 문화는 개인화·편파화되었다.

많은 학내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학생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일로 취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이수계획을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도교수의 역할이 절실하다.

현행 학업지도교수제는 각 단과대에서 교수에게 지도학생을 일괄적으로 배당하고, 그 이후의 학생 관리는 교수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학기 초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상담시간을 공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의 학생지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의 담임교사와는 달리 '교수'라는 존재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승진(정외3) 양은 "학생들 전반적으로 지도교수님을 찾아보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며 "우수장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지도교수님께 내도록 되어있지만 현재는 과사무실에서 접수받는 일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학생들의 참여부족을 지적했다. 객문규(전기공학) 교수는 "공대의 경우 학생들이 각 학년별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제대로 수강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개인연락처를 통해 면담약속을 잡아도 실제로 찾아오는 학생은 10명 중 2명 정도 뿐"이라며 "요즘 학생들은 대학에 온 이유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해 본 기회가 적어 지도교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지도교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얻는 학생도 있다. 이준용(불교2) 군은 "지도교수님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었다"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수님과 대화를 하려 할 때 교수님도 학생을 좀 더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학교 측도 현행과 같이 유명무실해진 지도교수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적은

비용으로도 학생에 대한 교수의 지도기회를 늘릴 수 있는 Freshman seminar, Junior seminar, Mentor seminar 강좌를 시행 중이다. 이번학기에 도입된 이면대 강좌는 정규교과과정 외에 교수가 원하는 주제로 수업을 기획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학과 당 학생과 교수 비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심층적인 지도가 이뤄지기 위해선 학생수의 조정이나 별도의 학생생활 지도 상담원 충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학직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제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북을 제작, 교육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도교수와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동약로에서

만년지력

"한국 학생들은 관심을 갖고 다 가오다가도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꺼려하는 것 같아요"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외국인 학생이 체감하는 한국문화'를 주제로 외국인 학생 5명과 인터뷰하던 중 한 친구가 꺼낸 이야기를 다들 공감하는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랐다. 한국말을 무척 잘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학교에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다.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싶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다.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싶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다.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싶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다.

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한편 매주 출입처를 돌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느긋하게 생각했던 태도도 바뀔 수 있었다. 대부분의 취재원이 기자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지만 착각이었다. 민감한 부분에서는 단지 알았으면 하는 기자와 알리기를 꺼리는 취재원 두 입장만이 남아 있었다. 취재를 거부당하는 당황스러움을 처음 겪었을 때는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득했다. 하지만 여러 번 겪어보니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하기도 했다.

항상 어려운 일만 겪는 것은 아니다.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로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은 행복함이자 동시에 스트레스의 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양질의 기사를 써내는 기자가 되기 위해, 내 삶의 탄탄한 기본기로서 나를 담금질 해주고 있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허심탄회하게" ... 총장, 교수 간담회가 지난 달 21부터 30일까지 각 단과대 별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주제를 한정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건전하고 활발한 간담회 문화의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ISP 시행해 U-캠퍼스 도약

그룹웨어·포탈시스템 구축

정보관리실(실장=김양우·정보통신학)은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4개월에 걸쳐 완료함에 따라 이 달 입학선정을 시작으로 ISP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ISP는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을 위해 수립되었다. 정보시스템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수명이 약 5년인데 그치지만 우리학교는 이를 10년간 사용하면서 경쟁력이 뒤쳐져 종합정보시스템 전면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룹웨어 구축을 5월부터 시행한다. 구축 목적은 △전자결재의 활성화 △정보 접근성·통합성 향상 △업무 협조 체계 수립 △개인화서비스 제공 △활용성 향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는 전자결재와 관련

한 문서의 저장·검색·관리 기능이 부족하고 메뉴 등이 사용자가 활용하는 데 편의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에 발생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포탈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홈페이지와 웹메일서비스, e-class 등의 로그인을 따로 해야 하고 개인 디오피스와 드림스(DRIMS)도 개별적인 로그인이 필요하다. 포탈화 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구성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현될 것이다.

그 밖에 △보안 솔루션 구축 △연구 및 학사 행정 통합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 캠퍼스 기반 및 조 체계 수립 △개인화서비스 제공 △활용성 향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는 전자결재와 관련

정보관리실은 ISP수립을 위해

작년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해 구성원들의 요구를 조사했다.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책방향과 담당 부분의 정보화 방향을 수립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유비쿼터스에 대한 인식, 유비쿼터스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산의 저해 요소 등을 확인하고 분석했다. 이후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의 일의 시급성과 선·후행을 고려해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ISP가 실현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비쿼터스 캠퍼스를 캠퍼스 곳곳에서 체할 수 있게 된다. 정보관리실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사와 관련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얻게 되고, 직원들은 출장 연구 및 학사 행정 통합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 캠퍼스 기반 및 조 체계 수립 △개인화서비스 제공 △활용성 향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는 전자결재와 관련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직원인사

- ◇ 부속기관장
 - △체육실장=신관호 △교육방송국장=김윤길
- ◇ 실·팀장
 - △경영관리실 혁신관리팀장=박상관 △경영관리실 CS경영팀장=박서진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장=박근서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장=박정훈 △사업개발본부 기금조성팀장=윤동규 △캠퍼스 기획단 캠퍼스기획팀장=박동수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장=정경섭 △운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장=박현오 △운영지원본부 구매팀장=박광호 △산학협력단 R&D 사업팀장=신기훈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이창학 △정보관리실 정보기획팀장=이국환 △정보관리실 정보운영팀장=김재선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조원생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장=김성근 △입학처 입학관리팀장=한문우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장=손재영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장=박승중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 통합학사운영실장=이성진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박만규 △이과대학 학사운영실장=김종진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황주환 △행정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통합학사운영실장=구태희 △경영(전문)대학원 및 경영

대학 통합학사운영실장=이경식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사운영실장=이건배 △공과대학 및 정보산업대학 통합학사운영실장=안재봉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통합학사운영실장=김종택 △문화예술대학원 및 예술대학 통합학사운영실장=이강현 △영상대학원 및 영상미디어학부 통합학사운영실장=문용주 △언론정보산업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 통합학사운영실장=오광진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장=김영진

◇ 실·팀원

- △경영관리실 혁신관리팀=유광호, 김영민, 임혜순 △경영관리실 CS경영팀=양성웅 △정각원=안미숙 △전략홍보실=이권화, 김지우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김태식, 전병진, 박선희, 박노경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팀=신하균, 김병중, 방종혁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김규환, 영경근 △사업개발본부 기금조성팀=김진환, 박희상, 변승재 △캠퍼스기획단 캠퍼스기획팀=정형주 △캠퍼스 기획단 시행관리팀=김용서, 박건기, 진차현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나병오, 황태열, 김영민, 유한림, 김중기, 이성기, 권지연, 장인준, 송지훈 △운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이영숙, 이혁준, 김우자 △운영지원본부 구매팀=변재덕, 이재우 △산학협력단 R&D사업팀=김봉주, 정병경, 유진, 최우석 △산학

협력단 산학협력팀=허부강, 조용신 △정보관리실 정보기획팀=문상국 △정보관리실 정보운영팀=신영배, 최문규, 공해정, 위희정, 김현정, 최준혁, 장기복 △학사지원본부 교무팀=김종성, 김영수, 류병성, 김병호, 김윤수, 이윤택, 박종혁, 최호진, 양윤정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이이성, 김진광, 임종민, 김태덕, 신지형 △학사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박세훈 △입학처 입학관리팀=주현석, 김형배, 김경희, 임지한, 김중주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변민우, 박현숙, 김준용 △학생경력개발원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윤주영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최봉주, 최광재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이이성, 김진광, 최국진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송민수 △국제화추진단 글로벌기획팀=김상우 △국제화추진단 한국어교육센터=김태형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김상애, 김성우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황병걸, 함영란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 통합학사운영실=정경훈, 김중애, 조정복 △문과대학 학사운영실=김대우, 한정관 △이과대학 학사운영실=김광희 △행정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통합학사운영실=허광도, 권우성, 이연주, 최정숙 △경영(전문)대학원 및 경영대학 통합학사운영실=박순선,

원충희, 김명숙, 장금숙, 차승현, 홍석화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사운영실=이동익, 고재선 △공과대학 및 정보산업대학 통합학사운영실=안상호, 이상원, 조순식, 임조경, 서정옥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통합학사운영실=유제동, 김효정, 조의성, 박현태 △문화예술대학원 및 예술대학 통합학사운영실=김중호, 최기석, 장동미 △영상대학원 및 영상미디어학부 통합학사운영실=손덕승, 박종진, 권혁자 △언론정보산업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 통합학사운영실=주성재, 정욱자(이상 3월 27일자)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

제47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학내 외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9시까지 국립 4·19지구 내 광장에 집결한다. 편의를 위해 오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4호선 수유역에서 국립 4·19지구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팀 구성은 학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등이 자유롭게 구성한 4인 1조 팀과 40명이 상으로 한 학과단체팀으로 나뉜다. 4인 1조팀은 총 10팀을 선정해 팀당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며, 단체팀에게는 △금상=1팀 70만원 △은상=2팀 50만원 △

동상=3팀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야구모자가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오늘부터 10일까지이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각 학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단체팀은 학과에 한하며, 4인 1조팀 중 10팀을 선정 지원했다. '해외로 가는 동국팀'은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폐지됐다.

故 박관호 교수 장학 수여

2007학년도 1학기 '박관호 교수 제자사랑장학' 수여식이 지난 22일 이과대학 학장실에서 진행됐다. 이 장학은故 박관호(화학) 명예교수가 우리학교 기초과학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대학원생 중에서 학업성적과 연구업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학기에는 △정예진(수학 석사과정) △김성우(물리학 석사과정) △최태범(화학 석사과정) △황지현(생물학 석사과정) 학생이 장학증서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장학

컴퓨터공학과 동창회(회장=유상동·컴공77졸)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달 29일 원흥관 E103에서

열렸다.

컴퓨터공학과는 지난 2005년 후배사랑 실천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한 이래 매학기 학과 학생 3명을 성적과 학과기여도 등을 평가·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학기가 세 번째로 △임종규(컴공4) △신근우(컴공3) △이은지(컴공2) 학생이 각각 15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컴퓨터공학과 동창 장학회는 매년 1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한 회원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문과 대중평 최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22일 2006학년도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를 공개했다. 학문분야 평가는 영어영문학, 컴퓨터공학, 행정학 등 8개의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에 우리학교는 학문분야 중 영어영문학 분야만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영어영문학의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인정', '개선요망'으로 분류되며 23개 대학 중 우리 대학을 포함해 총 13개 대학이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불교대·야간간좌 학생회 구성 정산대 보결선거 진행

불교대 학생회 보결선거 결과 신

희전면대

페인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다만 하나의 새내기 페인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친구가 되었다

친구 없어 떠돌아다니다지 말고 밤새 게임에 몰두하지 말고 수업 빠져 중간고사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의 친구가 되고싶다

인사발성

○...수수께끼 하나, 문화관 창틀 비둘기만큼이나 수업 중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공연예술학부 신입생들의 배려없는 관동성명.

수수께끼 둘, 시끄러운 인사소리에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도미노이기 때문"

미안해

○...우리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네스팟 서비스가 시행되어 무료로 무선랜 ID를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개강을 맞이한 학생들의 신청 폭주로 700개 ID가 금세 동나버려 학생들이 ID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학생: ID 개수 좀 늘려주세요!
직원: 늘리기는 하겠지만... 전제 ID 중에서 30%는 ID를 발급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군요.

학생의 친구: 친구야 미안해, ID를 3일정도 쓰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기간을 2주로 신청했거든.

백야

○...네! 이번주에는 동국대학교의 '명물'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켜져 있어도 멀쩡한 슈퍼 빈프로젝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가보겠습니다.

제보가 사실이었습디다. 동국대 학생들은 수업이나 개인사용이 끝난 후에 켜져 있어도 멀쩡한 슈퍼 빈프로젝터 램프 하나가 60만 원 가량 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꼭 꺼야하는 일반 빈 프로젝트와는 다른가 봅니다.

램프 하나는 한학기 등록금 15% 정도에 버금간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실마 아니겠쥬. 이상 '명물을 찾아서'였습니다.

해공(선학3)·황민철(불교4) 조가 약 9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단선으로 처리되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투표가 진행됐다.

불교대 총 유권자 232명 중 158명이 투표에 참여해 약 68%의 투표율을 보였다.

야간간좌 학생회 보결선거 결과 김현미(야간국통4) 양이 약 92%의 지지를 받았다. 단선으로 지난달 19일과 20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유권자 199명 중 약 52%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보산업대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이 김윤권(컴공4) 군의 단선출마로 마감돼 내일부터 3일간 정보문화관 P동 3층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농구부 몽골대회 우승

우리학교 농구부(감독=이충희)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국·몽골 수교 17주년 기념 농구대회'에서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는 한국과, 몽골, 몽골 유니버시아드, 몽골 프로리그 팀이 참가했다.

26일 치러진 덩크슛 대회와 3점슛 대회에서도 우리학교 남궁준수(체교2) 선수와 경주캠퍼스의 천대현(사체4) 선수가 각각 우승했다.

제16대 오영교 총장 인터뷰

“혁신 통해 최고의 대학 만들 것”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를 수 있어

오영교 총장과 학내언론사(동대신문·동국포스트·교육방송국) 간담회가 지난 28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교 총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오총장의 취임소감을 비롯한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 외부 인사로는 최초로 우리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총장으로서 한 달 동안 활동해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 대학총장이라는 일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과 판이하게 다른 분야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취임한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하나씩 해나가면서 유쾌하게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 '108프로젝트'는 어떤 모델을 토대로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습니까?

= 우리학교 총장에 응모를 하면서부터 '나는 동국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선출된다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시간낭비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연유로 취임 전인 지난 해 12월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선포식이 있었던 지난 13일까지 약 108일 동안 '108프로젝트'를 준비했다.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준비기간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108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게 됐다.

'108프로젝트'의 모델은 없다. 우리학교가 국내 사립대학중에서 최고가 되어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설정해 그에 따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의 모델 틀을 설정하는 것보다도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실력, 여건들을 우리학교가 도입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국내 최고 사립대학이라 일컬어지는 학교들과 우리학교의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학이 밝은 길을 그대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절대 앞서나갈 수 없다. 다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가져오되,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우리대학보다 앞서 있는 대학의 발전 속도를 추월해 더 앞서갈 수 있다.

- '108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 '108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기본적 방향은 우리학교 학사경영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최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처럼

대학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문을 끊임 없이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계속해서 배출해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인재를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 내는 것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학교 발전과 관련한 모든 부분이 최고의 학문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개발에 힘쓰고 발전기금을 모을 것이다.

- '108프로젝트'의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해 이뤄질 구체적인 추진계획에는 무엇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에 대비한 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 '108프로젝트'의 4년 발전계획을 큰 틀로 해서 매년 세부적인 발전안을 계획할 것이다. 후시 계획된 해에 이루지 못할 시엔 그 다음 해에 다시 계획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계획한 일들이 시행된다면 당연히 현재보다 대학평가 순위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의 욕심으로는 대학순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발표될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순위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올해의 성과로 평가되는 내년 대학평가부터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 '108프로젝트'를 통해 발표된 대학 경영방식에 대해 일부 구성원들은 '여기는 사람을 키우는 대학이지 기업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혁신 사례를 대학에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는 사람을 키우는 대학이지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경영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는 기본개념은 같다. 앞서 말했듯이 대학경영을 잘 해 오면 학문연구와 인재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최상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학교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학경영이다. 모든 구성원들의 목표는 우리학교가 1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선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정해 주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과 대학은 대상과 방법에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같다고 설명할 수 있다.

- 가시적인 아웃풋이 적은 학문 분야까지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문 발전의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눈에 보이는 기여도가 평가방법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학교에 기여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잘 높은 강의를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 역시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인 면 모두를 고려해 평가하겠다.

- 기존의 면대면 결재시스템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교체했는데 일부에서 제기된 전자결재 시스템이 면대면 결재 시스템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사용했던 면대면 결재는 시간·내용 면에서 모두 전자결재보다 뒤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거쳐야 하기에 엄청난 시간이 소모된다. 내용면에서도 상사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부분이 생기며 창의성도 떨어지게 된다. 결재하는 입장에서도 하던 일을 멈추고 결재를 봐야 하므로 체크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결재의 경우 미리 내용을 보낸 후, 결재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번에 하게 되므로 결재까지 거치는 시간이 단축될뿐더러 결재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 그동안 공영같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재원마련과 서울시와 함께한 '남산가꾸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새로운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수영장과 운동장, 해학문 주변의 지하를 뚫어 지하공간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부족한 시설은 지하공간을 채워 보충하고 그 위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 공원과 같은 캠퍼스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남산 가꾸기'의 일환으로 우리학교 캠퍼스를 정비해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서울시장과 중구청장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훼손된 환경을 복원해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제약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 측에서 투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BTL(민간자본 유치사업)방식 등을 통해 직접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돈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정부를 통해 연구자금을 끌어들이

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학교 소유로 되어있는 1,400만평의 땅을 돈 버는 땅으로 바꿀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학교의 진정한 힘인 동문과 불자,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생각이다. 힘과 재력을 가진 동문이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학교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재력 있는 불교 신자들이 우리학교에 기부하는 것도 시주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찰에 대해서는 '사찰장학금'을 제책하고 있다. 한 사찰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이 그 사찰과 인연을 맺어 신자가 되고 또 그 학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다시 사찰에서 기부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는 구조를 기대한다.



- 공간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현재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 수반돼야 하는데 낙후시설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 낙후시설 개선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는 없다. 당장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불편한 원흥관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곧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5~6억의 예산을 투자해 바닥과 창문을 비롯한 내부 시설의 리모델링이 이뤄질 것이다. MBA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국관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 역시 빠르게 리모델링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술관, 문화관을 한 층 증축할 예정이다.

- 올해 등록금은 7.5%인상이 되었고,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등록금 환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등록금 환부와 동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등록금 책정 부분은 학생들의 의사도 상당부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등록금

이 고지되고 납부한 이 시점에서 현금 환불이 학생들에게 무슨 힘을 발휘할 것인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환불을 다른 각도로 바라본다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강좌수석장학의 금액을 늘리거나, 고시반 학생들을 위해 외부 원룸을 대여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환불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 된다. 또한 이렇게 개선된 부분은 대내외적인 평가에 있어 학교 장학이나 시설개선 부분으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학교 순위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단순히 돈을 많이 낸다는 생각은 버리고 등록금 인상이 학교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 현재 교환학생제도도 아시아권 대학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영미·유럽권 대학과의 교류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를 위해 국제화 추진단을 설립했다. 추진단에서 직접 정책하고 일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더욱 다양한 국가와 교환학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아이비리그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 역시 앞으로 더 많은 대학과 이어 나갈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본 부장과 학장들이 기획해 진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 발전안을 추진하면서 학내구성원을 비롯한 동문·재단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공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요구된다.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동문들과 사찰은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동문회를 위한 동문회가 아닌 우리학교를 위한 동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 =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지난 28일 총장과 학내 언론사 간담회 모습.

제47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4·19혁명 47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침묵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19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가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1. 행사일시 : 2007. 4. 13.(금) 09:00~16:00
2. 행사장소 : 국립 4·19묘지(추모식) 및 북한산(등산대회) (집결장소 및 시간 : 국립 4·19묘지 내 화장 09:00까지)
3. 행사내용 : 제47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
4. 행사일정 및 준수사항

Table with 3 columns: 시간 (Time), 행사 내용 (Event Content),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Mandatory Items to Follow). Rows include 08:30 등산대회 단체합체 확인, 10:00 4·19혁명 47주년 기념 추모식, 10:20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식, 10:30 등산대회 출발(북한산), 12:20 중식시차(대동문), 13:30 전일 출발(도선사 코스로 하산).

- 5. 민주주의를 위해 신화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4·19정신의 침묵을 기리기 위해 동국인 모두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합니다. 가. 4·19기념 추모식 : 행사참가자 전원 참석 → 행사 전 4·19 기념탑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 분향 나. 동국인 등산대회 : 중식 시간 및 폐회식장소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중식 시 지나친 파음 절대 삼가. 다. 등산대회 중식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올 것.
6. 등산경로 : 국립4·19묘지 → 백련사배표소 → 대동문 → 도선사 * 안내와 의료지원을 위해 등산로 주요 위치에 산행지원팀 및 의료지원팀을 배치함.

학사지원본부

4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4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가. 일 시 : 4월 19일(목) 오후 3시 ~ 5시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다. 진 행 : 문예창작학과 장영우 교수 라. 선정영화 : 천년학 / 임권택 감독 2007년작 마. 관련도서 : 선학동 나그네 / 이철준 지음 1979년. 다. 장 원 : 10명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광> 내 <이용자료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야 하며, 영화감상 후 입장권을 토론타입 제출해야 합니다. 나.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 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제18회 에코포럼 정례세미나 개최

2007년 4월 봄을 맞아 에코포럼에서는 '화합의상을 통해 본 희망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18회 정례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교공동체, 지역공동체, 이념공동체 등을 통해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가운데 종교공동체에 관한 담론을 통해 현실의 문제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07년 또 다시 시작하는 제6기 에코포럼의 첫 행사에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7년 4월 27일(금요일) 오후 3:00 ~ 오후 5:30
■ 장 소 : 동국대학교 동국관 M동 3층 행정대학원 참관강의실
■ 주 최 : 에코포럼
■ 주 관 :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 주 제 : 화합의상을 통해본 희망의 공동체
- 사회 : 백남석(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 발제 :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생명평화결사 탁발승려단 단장)
- 토론 : 양재성(기독교환경연대 대표) 박영선(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성균(한신대 학술원 교수) 황대권(생명평화결사 교육위원장) 유정길(에코보타 대표)

■ 문 의 : (전화) 02-2260-8648, (팩스) 02-2260-8649 (이메일) ecoforum@dongguk.edu

생태환경연구센터 www.eco-forum.or.kr

고시 열풍 속 우리들의 자화상



▶1면에서 계속 이어짐.
이렇게 대학생들이 고시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IMF이후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과의 전공을 마땅히 살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전공을 살리는 직업을 찾기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진재훈 사무관은 "대학생들이 고시에 몰리는 것은 학력을 비롯한 여러 제한조건이 사기업보다 약하고 장기간 준비하면 붙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한 몫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각종 고시에 몰리다 보니 고시학원은 항상 수강생들로 북적인다. 혼자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고시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혼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고시반을 찾거나 고시촌이 형성된 신평동, 노량진의 학원을 찾는다. 신평동에서 학원을 다니며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는 유재혁(성균관대 경영2·휴학중) 군은 "혼자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보다 학원에서 직접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집중력과 이해도 면에서 효과적이다. 경쟁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긴장효과도 있다"며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밝혔다.

학원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시험 준비를 도와줄까? 전체적인 1년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한 과목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데 이것을 '1순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2순환, 3순환, 4순환까지 마치며 틈틈이 모의고사와 특강도 이루어진다. 1순환~4순환까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10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하기도 하는데 이때 300~4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로 인한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고시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있다. 학교 고시반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주거나, 학교 교수·학원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율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학교 고시반도 학원 커리큘럼을 도입하거나 장학금을 비롯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뚜렷한 자기주관 없이 고시를 준비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심지어 자퇴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 구직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 2년 휴학을 하고 9급 공무원 준비를 했던 강남대 모 학생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 출신이 아니라 학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시험에 두 번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잃고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섰는데 그동안의 시간과 돈에 대한 상실감이 컸다"고 말했다. 대학4년을 고시준비에 매달리는 것만큼이나, 대학시절 동안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자신이 하고 싶은 학과 공부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가지 있는 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시열풍'에 휩쓸려 별다른 목표와 신중한 판단 없이 단지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고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와 적성을 고려한 다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이야 말로 고시준비를 할 때도, 다른 직업을 찾을 때도 우왕좌왕 하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찾는 방법이다.

최미혜 기자
lmonaral@dongguk.edu

고시준비하러 가는 길

우리학교 고시준비반 운영 현황

운영에 필요한 최소 공간 확보해야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투자 요구돼

많은 학생들이 고시나 공사시험을 준비한다. 학생들의 관심이 반영돼서일까, 학교마다 고시반을 만들어 투자하고 있다. 과연 우리학교의 고시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학교의 공식적인 고시반으로 △사법고시반 △행정고시반 △인론사시험반 △외무고시반 △동원제(공인회계사반) 등 5개가 있다.

사법고시반 - 스터디 공간 부족

사법고시반은 만해관 4층에 위치해 있다. △열람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자료실이 갖춰져 있지만 고시반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다. 졸업생의 경우 말개는 16시간을 만해관에서 보내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쾌적하지 못하다. 또한 세미나실의 부족으로 겪는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법고시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준우(법 07졸) 군은 "제대로 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

는 세미나실 2곳 뿐이다"며 어려운 실정을 토로했다.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 일부는 소을 차당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외부 스터디룸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1층에 있는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용하는 회의실이나 자치단체들의 장소를 빌린다. 고시반 학생들의 일정은 개별적인 공부와 스터디 모임, 동영상 강의 시청으로 진행된다. 스터디 모임은 1차 합격자가 '매니저'가 되어 학생 3명과 함께 진행된다. 2학기에는 우리학교 교수님들이 특강을 하기도 한다. 한양대의 경우 우리학교 같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강이 몇 차례 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심민석 고시지도원은 "우리학교에서도 특강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고시반 자체시험 결과에 따라 매월 20~40만원씩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적은 액수의 금액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건국대의 경우 기숙사비는 전원 면

제이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는 상당금액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공인회계사반 - 학생들의 관심 필요

공인회계사반인 동원제는 동곡관 L동 1층에 자리잡고 있다. 열람실이 있고 컴퓨터 한 대만 있어서 중앙도서관과 공부환경을 비교했을 때 더 낫다고 하기도 어려운 정도다. 동원제에는 현재 열람시설만 있고 스터디를 진행할 장소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까지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였던 김갑순(회계학) 교수는 "모든 구성원들이 좁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문제 해결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인정하면서 "소음 문제에 대해 수차례 학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원제 옆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한의대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방음이 거의 되지 않고, 여름만 되면 우리학교 수영장에서 들려

오는 노래 소리는 공인회계사반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실에 까지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

공인회계사반의 학생들은 현재 동영상 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지원 받고 있다. 2005년까지는 3~4차례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지만 비용문제도 있고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개인별로 동영상강의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7월과 12월에 치르는 자체시험으로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면제 해준다.

행정고시반·외무고시반 - 인원확충 시급

행정고시반과 외무고시반은 만해관 4층에 있다. 외무고시반은 그동안 지원자가 적어 꾸리지 못하다가 올해 6명의 입실자가 있어 스터디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고시반은 사법고시반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고시반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부족한다 같이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라 서로 불편하다. 장학제도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고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면제해 주고 있다. 책이나 자료 구입에 대한 요청도 대부분 들어준다.

인론사시험반 - 체계적인 지도계획 필요

인론사시험반도 마찬가지로 만해관 4층에 있다. 총 4개의 고시반이 만해관 4층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다. 인론사시험반의 김덕민(신방 07졸) 반장은 "인론사반만의 공간이 없어 신문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 어렵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인론사시험반은 동영상 강의와 반원들 간의 토론으로 공부를 진행한다. 김관규(신문방송학) 지도교수는 "신문사와 방송사를 나누어 따로 지도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다가올 방학에는 방송사준비와 관련해 방송제작에 대한 특강을 예정 중이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30%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다른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는 학업 계획서 작성과 지도교수 면접을 통해 인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선발했다.

몇몇 대학이 별도의 건물에 기숙공간까지 갖추고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학교의 현실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고질적인 공간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만큼 예산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시반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창문.



▲ 소음에 노출된 외부 스터디룸.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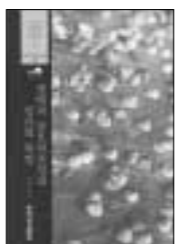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생태학총서 5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편 2007/ 신국판/390원/ 20,000원 ISBN 978-89-7801-188-0 94220



불교생태학은 불교의 생태학이 가진 사상성과 그 지향성이 매우 비슷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불교와 생태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불교생태학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불교사상에서 생태적인 요소를 가진 것 중에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의존적이며 상호(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기법(緣起法),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는 논리, 무생물들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초목불성론(草木佛性論) 등은 불교의 생태적 함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상들이다. 아울러 나를 죽여더라도 남을 살리려는 보살의 서원(大慈心)도 생태사상과 깊은 관련성을(觀緣性)을 보여주는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따라서 불교생태학은 연구의 성격상 학제적인 연구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연주의와 인간주의의 기본을 두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학문의 영역에서 떨어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 중앙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사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불교생태학이 학제적 연구의 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2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인간의 욕망**
에코포럼 편 2006/ 신국판/ 468원/ 22,000원 ISBN 89-7801-183-7 94300



이 책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제1기와 제2기의 (에코포럼)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성과물을 엮은 것이다. 책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기 《에코포럼》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것으로 묶은 제1부에서는 생태학·정치학·물리학·사회과학·불교생태학·철학 등 각 학문 분야에서 바라본 '상호의존적 시스템' 또는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생태학의 입장에서 다루었고, 최종덕 교수는 미시세계에서 객관적 대상·관찰·물리적 실험관 무언인가를 살펴보고, 이본철학의 사변적 태도가 여전히 기존의 실체론적 존재론의 관성에서 벗어나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니키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김승환 교수는 "복잡계"의 의미와 이것이 현재의 질서와 미래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고, 사회과학에서의 '정체성'과 '발현성(emergence)'의 문제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논한다. 장덕진 교수는 사회과학에서의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논하기 위해 정체성의 추과 발전성의 추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개인주의의 과학철학적 설명 프로토타입에서 시작하여 합리적 행위이론과 연결망 분석을 거쳐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한 복잡계 연구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검토하며, 어떻게 이어져지는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영성 교수는 자카(苦)·진단(集)·치유(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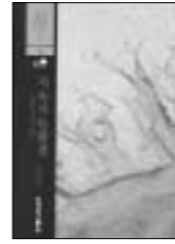
처방(道)이라는 연거푸 세계관에 입각한 자비적 생활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욕망과 생명이란 대주제로 논의되었던 제2기 에코포럼의 결과물로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생태적 인간에 대한 철학적·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김중주 소장은 자아의 개념과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개념인 욕망을 살펴보고 욕망의 대상-원인인 타대상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 후 욕망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고, 서우현 교수는 인간의 신체 가운데 뇌가 인간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끊임 없는 뇌의 변화가 인간이성, 의식과 욕망에 변화를 초래하여 우리의 삶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의학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최재천 교수는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유전적 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루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범주에서 분석해야 함을 역설하였고, 권영근 소장은 생물 다양성에 토대를 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 되는 사례는 현대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양성은 파괴되어 왔으며, 이제 다시 이 다양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고 그 기본원리는 Emroy 중대법칙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지경 교수는 체계이론의 존재론과 불교의 존재론의 차이, 불교의 유심론적 생명관과 현대과학의 유물론적 생명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업(業)을 형성하는 소유론적 욕망과는 다른 만물의 존재방식이 상관적으로 서로 오가는 왕래와 거리의 욕망을 뜻하는 존재론적 욕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이들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망하여 본 개인 단편을 통해 상호의존적 시스템 하에서 인간이 가지는 욕망의 실제, 생명학의 의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게 되리라 생각한다.

3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3 **지속가능발전**
에코포럼 편 2006/ 신국판/ 476원/ 23,000원 ISBN 89-7801-184-5 94300



이 책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대주제에 대해 진행되었던 (에코포럼)의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책의 구성을 보면 크게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기업경영전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경진 교수는 자유무역의 이념이 경제성장과 효율을 증시하는 이념인 경쟁성장과 효율을 증시하는 이념인 환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으로 바라보고, WTO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의 이념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병욱 원장은 현재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목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번영, 환경의 질,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위한 기업들의 환경경영 전략과 성공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윤순진 교수는 기후변화의 발생원인과 국제적 대응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후변화시대에 요청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논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관성에 대해 논하였다. 임재구 박사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의 일반적 인연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국민권·에너지안보·재무 및 투자,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기후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의 적절한 연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희희 교수는 다양한 철

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사회를 설명하고 지속가능사회에서는 경제·사회·환경 등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해 종교적 철학과 인본주의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제3부에서는 '물'에 대한 논인데, 윤석영 박사는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단을 하고 원칙과 규범을 정립한 후, 검중과 비관을 통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물 관리와 연계하여 살펴보았으며, 김중원 박사는 물 관리 조직의 방향·물이용·상수도·수자원개발·수자원 갈등 분야에 있어 각각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부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논인데, 정병성 국장은 그간 폐기물의 처리방식이 벗어나 앞으로 폐기물의 처리는 자살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모색해 보고, 박준우 교수는 폐기물을 포함한 자원의 국가적 순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살예방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개념의 실현가능성과 다른 기존개념과의 차별성을 짚어 보고, 이를 통해 국가자살예방계획 수립의 당위성과 실천성을 검토하고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틀 속에서 농업·식량문제를 다루었는데, 김경철 박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주요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해 전망해 보았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하였다. 이태호 교수는 남북한을 합쳐 7000만 인구의 식량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그 배경이 되는 농산물 수출, 소비정책의 과거 추이를 정리하고 미래 상황을 전망하였다.

제6부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인구·복지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안종범 교수는 대내외 복지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여 한국의 복지현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복지에 있어서의 환경변화와 한국 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체제로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념이 현실에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접근방법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각본적 접근을 통해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본 시도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독자들은 이에 대해 보다 더 쉬운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학습활동, 학교가 적극 지원한다

정보공유 및 집중적인 학습 가능 ... 지속적 참여 유도해야

우리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이종권·수학교육)는 지난해부터 매학기 동국 튜터링과 Do Dream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에는 동국 튜터링 20팀 95명, Do Dream 학습동아리 30팀 148명이 선정되었다. 동국 튜터링은 해당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튜터(tutor, 가르치는 사람)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튜티(tutee, 배우는 사람)를 일 대 다수로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며, 학습동아리는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학습을 하는 형태이다.

동국 튜터링과 Do Dream 학습동아리에는 팀당 학습 활동 지원금 3만원과 매주 간식이 지원되며, 튜터와 리더에게는 사외보수시간 16시간이 인정된다. 또 튜터에게는 대학생 15만원, 학부생 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학기말 우수팀으로 선정된 Do Dream 학습동아리에 △최우수상(1팀)=30만원 △우수상(2팀)=20만원 △장려상(5팀)=10만원 △우수상(총 12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튜터링이나 동아리의 과목 선정은 해당 학기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취업스터디 그룹이나 토의 스터디 그룹 등 비슷한 성격의 학습 관련 스터디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이다. 튜터와 리더를 포함해서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각각의 팀들은 한 학기동안 8회에서 걸쳐 주당 2시간 이상(총 16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며, 매 주 정해진 날짜 주 간 보고서 및 활동 사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선정된 팀들 중에서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개설된 강좌 차원에서 여러 팀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경우가 있어서 눈에 띈다. 동국 튜터링의 '포에지', 'metaphor', 'poetry'는 '현대시 강독' 강좌(김준식 국어국문학과 교수 담당), Do Dream 학습동아리의 '나비', '비창나라', '상륙'은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실용논리' 강좌(홍윤기 철학과 교수 담당)를 듣는 학생들이 모

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단과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산업대학이 1학기 52%, 2학기 40%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 당시 단과대학 비율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과대에 편중됐는데, 올해 역시 상대적으로 경영대나 사과대는 취약한 편이다. 모든 단과대가 골고루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 지원금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 팀당 4명에서 6명인 점을 감안할 때 팀 기준으로 지급되는 3만원은 적은 금액이다. 팀당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에 한해 한 번 더 지원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 대학생 튜터에게 장학금 15만원은 그다지 큰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번에 대학원생이 참여한 팀은 약 10팀이다.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생들의 진학을 유도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전공 심화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참여 유도는 튜터링의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현재 10만원인 학부생 튜터 장학금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2006년 1학기=총 18팀(튜터링 5팀, 학습동아리 13팀) △2006년 2학기=총 30팀(튜터링 9팀, 학습동아리 21팀) △2007년 1학기=총 50팀(튜터링 20팀, 학습동아리 30팀)으로 전체 선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학습동아리의 경우 수준이 비슷하고 목표가 동일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선발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담당 연구원이 1명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하루 빨리 예산 확보와 인력 보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튜터링과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 수

는 서류상으로는 243명이지만 실제로는 300명 이상 일 것으로 예상된다. 팀당 인원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함께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튜터링과 학습동아리는 프로그램 자체가 굳이 학생들의 새로운 스터디를 꾸리지 않더라도 기존에 스터디를 해왔거나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제나 관리를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더해 주는 것이다. 사학과 소모임 '동양사학회'에서 따로 분과를 설치한 '동양고대사학회'나 국어국문학과 학술 분과를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한 '문학이론 분과' 등이 그 예이다.

'형사법학회'의 튜터 조진우(대학원 석사과정 법학과 전공 4학기) 씨도 2002년부터 형법 스터디를 진행해오다가 2005년부터 형사소송법 스터디를 진행해 왔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 가량 수업을 하는데, 학과 커리큘럼 상 2주 분량에 해당하므로 강도 높은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습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학기 튜터로 참가해 동일한 팀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C.A.P.S First'의 튜터 윤근만(컴공4) 군은 "앞서 그 과목을 수강한 사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튜터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튜터링"이라며 "여럿이 모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증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튜터로 참여한 학생들이 후에 튜터가 되며, 나아가 인소문으로 다른 학생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는 등 자생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대학생건강 ②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 건강해치는 지름길 고단백 식사와 운동으로 체중조절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나이부터 비만으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강조되고 있어, 미용적인 관점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시도도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원칙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먹는 양을 줄여야지 끼니를 거르면 안 된다. 금식할 경우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순서로 영양소를 사용한다. 탄수화물의 저장량은 매우 적으므로 금방 없어지고 그 다음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도 지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게 된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70% 가까이가 운동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기초대사량에 의하여 결정이 되므로 기초대사량을 결정해주는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하며 체중조절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어트 시도 시에는 꼭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식사를 거르는 방

법의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되면, 처음 한 두 번은 체중이 잘 빠지지만 이는 대부분이 수분과 근육의 소실로 생긴 것으로, 체중 감소 후에 이전보다 적게 먹어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다시 살이 찌게 된다. 오히려 예전처럼 먹는다면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 소위 요요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달 10Kg 체중감량 보장!'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판단을 피해야 한다.

체중 감소 속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2~4kg 정도가 좋다. 이는 지방을 줄인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장 알맞은 속도라고 보면 된다. 즉 하루에 1,000Kcal 정도 씩 운동과 식사로 줄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식사량을 이전의 70% 정도로 줄이고 매일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면 매주 0.5~1kg 정도 감량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비만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관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해야 하고 식사를 즐기는 것보다 고단백 식사와 운동으로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저체중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은 비만만큼 위험하므로 충분한 영양섭취와 꾸준한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유일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기정의학과 교수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2.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

다양한 인문학 영역 지문 제시와 교과서 내용 응용

글 쓰는 순서

1. 동국대 통합논술, 이렇게 출제하고 평가한다.(윤재용 교수)
2.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윤재용 교수)
3. 자연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성정석 교수)
4.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인문계 신입생)
5.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자연계 신입생)
6.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하세요.(인천대건고 논리학 교사 주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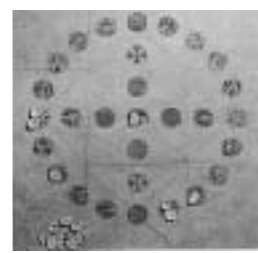
통합교과형 논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지문이 제시되었다. 교과서 내용, 신문기사, 백과사전, 그림, 고전 등에서 총 9개의 제시문을 뽑고 5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우선 예년에 비해 제시문과 문항이 많아진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고 개별 문항들이 인문학의 주

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밑의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평가해보자는 게 출제자의 의도이다. 특정한 실제 상황에 맞는 경제이론의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2번 문항의 경우, 오답자가 의외로 많았으며 따라서 문항별 취득 점수도 가장 낮았다. 모의고사 응시자들이 시장경제원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번 문항은 환경학의 고전으로 알려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현대 경제학의 실용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는 피터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에서 제시문을 발췌해서 두 인용문 사이의 차이점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1960년대의 개발국가적 배경 하에서 '현재의 편익을 위해 장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경우'와 2000년대의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현재의 편익을 자제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다. 환경경제학의 시대적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응시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이다. 지문의 요지와 논점에 대한 이해도가 주요 평가요소인데, 이런 부분은 대체로 준비가 잘 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꽃핀의 모양



꽃핀과 말

4번은 서로 영역이 다른 3개의 제시문 사이의 공통된 이야기 구조를 찾는 문항이다. 꽃놀이와 야구와 서양의 고전문학인 호머의 '오디세이' 사이의 구조적 연관성을 찾는 게 관건이다. 다양한 이야기 양상들로부터 통합적인 주제를 찾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문제이다. 여러 영역이 융합해 있지만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찾고, 그 구조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 발견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려는 문항이다. 난이도도 있고 배점도 높아서 변별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수험생들이 가장 점수를 얻지 못한 문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평가기준은 1. 이야기의 순환구조 인지, 2. 이 구조적 특성이 모든 제시문의 공통특성을 강조, 3. 한 제시문을 중심 이야기로 삼되 다른 제시문들은 중심 이야기를 보강하는 사례로 활용하는 전개방식 등이다.

5번은 영역 전이를 확실하게 하여 통합교과형 논술의 특성을 잘 살린 경우이다. 로열드 호프만의 '갈기도 하고 아니 갈기도 하고'에서 뽑은 지문은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바로잡고 화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편견과 이해 사이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취득 점수가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인문계 응시자들로서는 낯선 지문일 수 있으나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부담감을 줄여주었다.

이상, 이번 모의논술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지문, 영역의 전이와 융합, 교과서 내용 이해와 그것의 실제 응용 등이 두드러졌다. 이는 다양한 사고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능력은 평상시의 학교공부로도 가능한 수준에 머

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모의고사 문제 설계에서 보완할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항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지문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제시문간 혹은 문항들간 상호 연관성과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자체 평가인 만큼 실제 논술에서 보완할 것이다. 다양한 가운데의 일관성과 조직성을 세밀하게 갖추어 나가는 데 비중을 둔다는 뜻이다. 또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 설문 조사 및 응시자들의 답안을 채점한 결과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사실 논술학원 수강경험이 분교 논술 모의고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4배수 많은 52.7%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모의고사 논술 성적 결과에서는 사실학원의 수강경험이 모의고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평균 63.55점)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평균 75.85). 이로 미루어보면, 이번 모의고사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윤재용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2008년 논술연구위원



특별기고문

빵을 먹고도 맑아지는 누에처럼 제도권 틀에서 벗어나 더 큰 틀을 창조하길



이종찬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도 있을 것이다. 배움의 장에서 가끔 누에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 좁쌀만한 알에서 부화하여 먼지 같은 유충이 그 단단한 빵을 먹으며 자라가니 신기하기도 하다. 자라는 과정 또한 기계적이다. 일정한 기간을 두어 먹이를 쉬다가, 다시 먹기 시작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한다. 이를 일러 누에가 잠잔다 한다. 누에의 석잠을 자야 성장이 완수된다.

이 석잠을 지나는 과정이 재미 있다. 빵의 고체를 먹어가며 자라는데 먹을수록 몸뚱이는 점점 액체처럼 투명해 진다. 다 자라 집을 지을 때가 되면 전신이 맑아서 투명해진다. 집을 지을 잠박(蠶箔)으로 율기려면 등불에 비추어 투명한 놈을 올린다.

배움도 이와 같아야 한다. 배움은 지혜의 축적이다. 지혜가 늘어갈수록 누에처럼 몸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맑아져야 한다. 제도적 배움의 기간, 초·중·대학이라는 3단계도 누에로 비유하면 석잠의 휴식을 지나는 셈이다. 이 석잠을 지나 완숙된 인격체가 되었다면 누에처럼 투명한 맑은 몸이 되어야 하고, 누에의 고치처럼 독립된 '나'로서의 집을 지어야 한다.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본분종사(本分宗師)의 작가(作家)까지는 못 되어도 그런 작가적 정신은 있어야 할 것이다.

누에의 자신의 집을 찾아 지어 놓고 그 안에 갇히나, 사람은 이와 달리 집을 지을(作家)이 얽매임의 집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내 집인 무한 공간의 집을 짓는 자유의 집이다. 제도적 배움의 틀 속에서 자라지만, 이 제도를 마치는 순간에는 어떠한 틀에도 얽매임이 없는 자유인으로서의 작가로 변신하여야 한다.

누에의 자신이 지어 놓은 집에서 다시 수도의 잠을 자고, 그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환생이라는 대변화인 나비로 탈바꿈까지 하여 다시 제3의 삶을 사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속박의 구속을 벗는 해탈이 아닌가. 사람은 이와 달리 환생의 변화 없이 벗어나는 지혜를 가졌으니, 깨달음의 본분의 집을 짓는 순간, 집의 구속이 아닌 어디에도 집이 될 수 있는 벗어남의 집을 짓는다. 이를 일러 해탈이라 할 것이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학의 기쁨에 들떠 운동장을 가득 메운 신입생을 보면서, 제도권 속에서 틀에 박힌 교육을 받게 되겠지만, 이 틀을 틀로 굴레삼지 말고 보다 더 큰 틀의 변화를 창조하는 지혜가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식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변하여 빵을 먹고도 맑아지는 누에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맑아진 육체에서 뿜어낸 섬유질이 비단을 낳듯이, 지혜의 머리에서 재창조된 지혜가 인류에게 공급되는 비단옷이 되어, 진(眞)·선(善)·미(美)의 아름다운 몸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치를 지어 스스로 얽매임은 작견자전(作繭自纏)이 아닌, 집을 짓되 집을 벗어나는 작가자탈(作家自脫)의 지혜를 축적하는 입문으로 삼는 학생의 모습을 기대한다.

달하나 천강에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전영일
공과대 건축학과 교수

단군이 천제(天帝) 환인(桓因)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군의 후손인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님'의 자손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정통성과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의미이고, 하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후 산의 흐름은 기의 흐름으로 여겼고, 산에 올라 천기(天氣)를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힘의 근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울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인들은 오늘날 산에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러나 서양은 그리스시대 이후 하늘은 영원정한 규칙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민혁명의 정신을 제공한 볼테르는 "진정한 위인이라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아는 자"라고 말했지요. 이러한 하늘의 원리를 '프린키피아'라는 책 속에 기록하였던 뉴턴은 얼마나 존경 받았으면, 그의 임종 때 영국공작 2인과 백작 3인이 그의 관을 손수 운구하였으며 왕실 전용 무덤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겠습니까? 그의 이론을 기술-모든 기술은 과학에 앞서고 모든 생산은 기술에 앞서며 모든 사회는 생산에 앞선다! - 에

적용하여 드디어 기술과 과학이 한 데 어우러지게 만들었던 제임스 와트가 찬란한 현대기술문명의 시발점인 산업혁명을 연 핵심인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서양에는 적어도 16세기 이후에는 하늘과 우주운행을 수학과 과학으로 인식하였고 문벌이에 과감히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갔던 점이 동양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하여 '국부(國富)'를 키우자는 점을 깨우치게 만들었던 아담 스미스 이후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교역을 중시하였으며, 그 교역의 중심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올해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화려하게 그치지않은 'the America's Cup' 대회가 약 90일 후에 개최됩니다. 영국이 제2차 산업혁명시기에 개최한 제1회 만국무역박람회를 1851년 런던 수장궁 - 크기가 3백 미터가 넘었다! - 에서 개최하였고 그와 동시에 바다의 만국박람회인 'the America's Cup'을 개최하였습니다. 해상무역과 자유무역원칙(아담 스미스)을 바탕으로 바다를 지배하였고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한 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해상교역은 등한시한 채 고단하게 땅에 집착하여 살았고 세계최고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기술과 최고 인구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부모님들은 안전자산인 땅을 확보하려 노력하듯이 우리 학생들은 또한 안전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대와 법대에 진학하고 공무원과 각종 공사에 취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골의 유혹을 과감히 떨치고 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저 바다 너머를 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제란을 자기가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된다!"

독자 사진첩



갈매기

자신의 삶과 사랑은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사랑과 삶을 살 수 있다고. 갈매기가 혼자 있지 마렴~

문열수(사파대 북한)

체육부장 기고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

퇴근 후,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주요 사회활동을 하는 7, 80년대 졸업생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대학의 스포츠에 대한 화제로 대화가 깊어진다.

재학시절에 강의를 수강하며 전교생이 화 트인 경기장 응원석에 모여 동국대 승리를 외치던 응원 함성은 선배와 후배, 졸업생과 재학생, 스승과 제자, 동문 비동문할 것 없이 '동국'은 하나가 되었고, 한순간에 이토록 애교심과 동국인의 자부심을 다 함께 느낀 적이 없었다. 전국을 제패한 날이면 동대문운동장에서 교정까지 스크럼으로 한 몸이 되어 대로를 활보하며, 동국인의 위대함을 마음껏 자랑했었다. 동국인의 팔걸은 울지로 · 충무로 · 퇴계로 일대 크고 작은 식당 주점마다 교가와 응원가 합창으로 넘쳐나고, 바로 그날이 동국의 대축제였으며 동국인의 자부심이었다.

제각기 추억을 쏟아 놓던 졸업생들은 지난날의 스포츠에 관련된 한 가지 추억만으로도 애교심을

되새기며, 모교에 대한 사랑을 서로 먼저 털어놓기 시작한다. 또교가 배출한 우수선수가 프로팀에 진출하여 선수 또는 지도자가 되어 큰 활약을 함으로써 또 다른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국 스포츠가 동국인의 정신을 살아 있게 하고, 단결되게 하며 지속적인 자부심과 애교심을 갖게 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결집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동국 스포츠의 주인공인 우리 선수들 또한 그 시절 선수들 못지않은 기량과 의욕으로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며 목표를 향하여 뛰고 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야구부가 7여년 만에 의미있는 큰 우승을 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였었다. 그간 체육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져 왔으나 우리 동국인의 관심은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대학 스포츠는 젊음의 패기가 넘치게 하는 가장 큰 활력소요 살아있는 대학의 꽃이며 모든 동국인

이 한마음으로 되는 계기가 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취업이란 큰 과제 앞에 마음과 몸이 묶여 강의실과 도서관을 떠나지 못하고 눈부신 태양조차 쳐다볼 겨를 없이 학문에만 몰두하는 우리 동국인들, 올해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함께 화 트인 경기장으로 뛰어나와 동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자긍심도 키우고 추억도 만들며, 애교심도 더해 보고 답답한 마음도 풀어보며 어떻게 생각해 본다.

전국의 대학에서 제일가는 우리 응원단의 멋진 울동에 맞추어 힘찬 교가와 응원가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줄 때, 우리대학 각 운동부 선수들은 올해도 전국제패를 기필코 해낼 수 있으리라 자부해 보며, 전 동국인이 힘을 모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우용
체육부장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향
월	섭산적구이 (2200)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참치김치덮밥 (2200)	육개장 (2000) 제육김치덮밥 (2000) 얼무버블밥 (2000)	된장찌개 (3200) 알순두부찌개 (3500) 고등어김치초림 (3800)	북어해장국 (2500) 새우볶음밥+탕수육 (2900) 김치덮밥 (2500)
화	순만두국 (2000) 닭갈비 (2000) 카레라이스 (2000)	갈비경단백반 (2200) 치킨볶음밥 (2000) 리조죽 (2000)	된장찌개 (3200) 갈낙전골 (3800) 황태구이 (3800)	애호박고추장찌개 (2300) 생이채물고기비빔밥 (2900) 카레라이스 (2500)
수	산채비빔밥 (2000) 돈육콩나물볶음 (2000) 잡채덮밥 (2000)	삼치김치찌개 (2000) 돈삼겹두루치기 (2200) 하이라이스 (2000)	된장찌개 (3200) 오징어술솥밥 (3500) 닭도리탕 (3500)	불동된장국 (2300) 수제돈가스 (2900) 순대볶음덮밥 (2500)
목	부대찌개 (2000) 돈가스 (2500) 오징어덮밥 (2000)	징터국밥 (2000) 매운오삼볶음밥 (2200) 닭조림 (2000)	된장찌개 (3200) 해물전골 (3800) 카레라이스 (3500)	쇠고기무국 (2500) 철판볶음닭갈비 (2900) 캠참치비빔밥 (2500)
금	쇠고기국밥 (2500) 해물굴소스볶음밥 (2200) 안동찜닭 (2000)	돈육김치찌개 (2000) 오징어탕수육 (2000) 떡볶고기 (2000)	된장찌개 (3200) 돈가스 (3800) 날치알회덮밥 (3500)	떡만두국 (2300) 떡볶고추장떡볶이 (2900) 해물순두부 (3500)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혹은 사진이나 인쇄, 민방,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稿酬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휴게이시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ku.edu
TEL : 2280-3481-2 FAX : 2279-1270

학생들을 위한 공간, 더 증설돼야

우리학교는 학내 공간의 증설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산 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내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3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공간들이 다시 리모델링 되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특히 동국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방형 열람실이 세워지고 최근에는 경영대학원 건물에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편안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휴게실이 더 필요하고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국관의 경우, 리모델링 전에는 야간대학의 개인열람실이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2층으로 이전하여 개방형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여학생 휴게실도 사라져 쓸 수 있는 공간도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열람실을 이용할려면, 명진관이나 만해관 열람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휴게실도 마찬가지이다. 학내에 공식적인 휴게실은 만해관과 중앙도서관, 해학관, 학림관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점심시간이나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꼭 차 발 딛을 틈이 없곤 하다. 그런데 휴게실을 이용하는 사람마저도 개인공부를 하거나 그룹토의를 하는 수준이니, 쉬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별 수 없이 공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데, 한참 수업이 진행되는 오전이나 오후에는 이마저도 힘들다.

열심히 공부하는 곳과 쉼이 없는 환경은 학생들의 경쟁력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본다면, 주인이 일하고, 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주인이 자라나며, 학교가 발전하고 주인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영미(사과대 행정4)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생들의 속 시원한 신문고 되길

지난호 동대신문은 학교 개혁의 바람에 발맞춰 한층 발전된 기획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기존보다 학교 소식을 알차게 전하면서 학교 학생들의 생각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보도면에서 다뤄진 "학내 '현책방' 도입 어때요?"라는 기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준 기사였다. 실제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하며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관두세운 경험은 대학교 학생이라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기사에서 다른 학교의 예를 상세히 들어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비싼 교재값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준 점이 좋았다. 앞으로는 수업에 자주 사용되는 책은 대어하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다른 학교의 예들처럼 오프라인으로 서적을 거래하도록 해주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우리 학생들의 편익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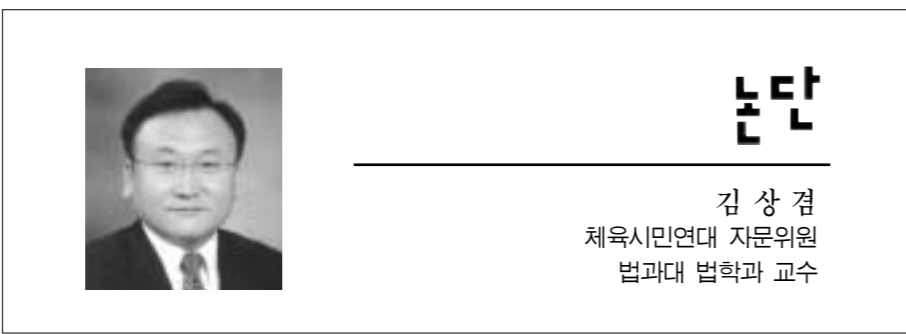
또한 지난호 동대신문을 보면서 느낀 가장 큰 트렌드는 거센 세계화 물결이다. 커브스토리, 기획, 여론·칼럼,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외국과 외국인에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 반가웠던 기사는 '교환 학생을 꿈꾸다면 여기를 주목하라'는 기사였다. 필자만이 아니라 해외 유학을 꿈꾸거나 외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요즘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 됐을 것이다. 반면 '영어강의 이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기사에서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신청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나오는 현상을 알 수 있었는데, 영어강의 개설의 부작용과 그에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준 점이 좋았다. 앞으로는 수업에 자주 사용되는 책은 대어하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다른 학교의 예들처럼 오프라인으로 서적을 거래하도록 해주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우리 학생들의 편익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인지(경명대 국제통상3)

대학에 남아 있는 군기문화의 잔재

최근 일부 대학의 신입생활영역에서 신입생의 신고식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학세대기인 신입생에 대하여 신고식을 시키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대학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신입생 신고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방식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문제가 된 신고식은 지성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 신고식의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낯 뜨겁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하기 싫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이미 상당기간 지적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자들뿐만 아니라 학교당국의 지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동안 군대문화와 조폭문화에 쫓겨온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정말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미풍양속은 전통으로 잘 이어져 오지 않고 사회적 폐습들만 이리도 끈질기게 이어져 오는지



논단

김상겸
체육시민연대 자문위원
법과대 법학과 교수

인간세상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산업화로 유입된 군대문화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 이래 유교문화의 영향 하에서 장유유서의 질서가 오랜 기간 뿌리를 내렸고, 물론 과거보다는 희박해졌지만 지금도 이는 미풍양속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능력을 중시하고 하면 된다는 밑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사고가 형성되었다. 특히 1960년 초반 군부쿠데타로 탄생한 정권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개발이라는 당시 획기적 아이템을 들고 나와 국민을 몰아붙이면서 사회문화에 군대문화가 유입되는 상황이 되었다. 오로지 상명하복과 충성만 요구하는 일제식의 군대문화가 사회에 유입되어 정착하면서 초기에 느꼈던 거부감은 세월이 흐르면서 희석되고 사회 각 분야에 자

리 잡았다.

그렇지만 이런 악습 내지 폐습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대학에 유입되어 답습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이 없는 일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버리고 폐기시켰던 군대문화가 대학에서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더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비극을 보는 것 같다. 대학에 들어가면 신고식을 통하여 폭력과 비인격화며 물들게 된다면 이들이 대학에서 배우고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인격은 스스로 자존 받지 못하고 손상을 입음으로써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선인선과’며 ‘악인악과’라고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에게 군기를 잡고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맞보게 하는 그런 행

동과 사고는 과거 군사정부가 조폭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스스로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폐습의 영향은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인격을 파괴하며 나아가 사회질서를 경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역량 맞는 대학문화 선도

그동안 민주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정부 각 부처의 개혁바람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 과거의 폐습이었던 내용을 가지고 신입생 신고식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일부의 대학구성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사회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폭력적·선정적인 대학의 신입생신고식은 버려야 한다. 더 이상 가지고 가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과거지향적인 군대식의 신고식을 버리고 지성의 전당에서 볼 수 있는 학생다운 신고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역량에 맞는 대학의 성숙함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대학구성원과 대학당국, 나아가 사회는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사설

등록금 환불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두고 총학생회와 대학본부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의 등록금 협의 테이블이 3차까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학교와 학생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22일 열린 등록금 협상 3차 워킹테이블 자리를 통해 4.5%의 등록금 인상은 수용하되, 나머지 3%를 현금으로 환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8일 열린 총장·총학생회 간담회와 총장·학내언론사 간담회에서 오영교 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더라도 현금환불로 이뤄지는 것은 학생들에게나 학교로서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학생들도 환불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 발전적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대표인 총학생회가 전체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 측도 학생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등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불했을 때 학생들이 환불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이다. 지난 해 등록금의 1%가 환불됐을 때에도 환불된 돈의 대부분이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에 쓰였다는 과장조의 응답이 나올 정도였다. 학생 개개인에게로 환불된 돈이 지속적인 효과를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등록금 현금 환불이 꼭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하지만 등록금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학생과 학교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등록금을 환불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학교 측도 등록금 인상을 책정과정에서 인상근거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해 보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등록금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책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등록금을 인상하고, 후에 환불 조치를 통한 소모적인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에 관해 양 측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 역시 등록금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실질적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보리소

세 가지 보배, 삼보

동국대학교의 캠퍼스, 거룩한 삼보의 언덕에 봄이 성큼 다가와 있다. 이 맘때쯤이면 교정은 새내기들의 푸른 웃음과 희망으로 더욱 활기가 넘친다. 앞으로 삼보의 언덕을 수없이 오고내릴 새내기들을 위해 삼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삼보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세 가지 보배라는 뜻으로, 부처님(佛)과 부처님의 가르침(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이 되고자 수행하는 스님들의 불교 공동체(僧)를 가리킨다. 이 셋을 보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배는 그 자체로서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구하는 등, 우리에게 항상 큰 이로운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보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 ‘불난 집’ (火宅) 또는 ‘고통의 바다’ (苦海)라고 말한다. 늪과 병들고 죽어가는 실존적 고통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한시도

근심과 슬픔, 고통과 번뇌를 떠날 수 없는 이 사바세계는 가위 화택이요 고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상의 영원한 보편적 진리인 연기법(緣起法)을 깨달은 후 “나는 불사(不死)를 얻었노라.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라고 사자후하신다. 불난 집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하셨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 안락(安樂)의 피안에 당도하신 것이다. 한 마디로 크나큰 자유(해탈)와 평화(열반)를 이루신 것이다. 이 세상에 해탈과 열반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터이니, 우리는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이끄는 불·법·승은 보배 중의 보배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불교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삼보에 귀의하는(삼귀의) 것이다.

거룩한 삼보의 언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모두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삼보의 의미를 깊이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박경준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메아리

아찔한 프로그램

▲ 1889년 조셉 플러처의 ‘뉴욕 월드’에 황색 웃을 입은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로 키드’ 만화 시리즈가 연재됐다. 이 만화가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경쟁자인 ‘모닝 저널’의 윌리엄 허스트는 ‘엘로키드’의 스타 프를 빼내 또 다른 ‘엘로 키드’를 만들어 연재했다. ‘뉴욕 월드’와 ‘모닝 저널’에서 ‘엘로키드’ 만화 시리즈가 동시에 연재되기 시작하자 두 잡지는 주인공 ‘엘로 키드’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자 출연자가 전직 예로배우였다는 것이 방영된 후에 밝혀져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제작진 측은 방송 직후 “여자 출연자가 예로배우였다는 것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여자 출연자는 제작진 측이 자신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청률을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며 제작진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쳤고, 이에 분노한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 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부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은 자극적이거나 ‘가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짜는 데 급급하다. ‘리얼리티’가 부각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프로그램 방영의 주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 두 잡지의 경쟁이 과열되고 잡지는 점점 대중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 결국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언론매체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시청률 지상주의 안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와 자극적인 소재를 즐기는 수요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추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단순한 재미’인지 아니면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인지 방송의 현 실태와 시청자로서의 자세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강지혜 편집장
iamjh713@dongguk.edu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편집장 강지혜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18-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학생상담센터 활용 Tip - ① 대학생활에서의 관계 풀이기

교내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도움받길

한결 훈훈해진 날씨,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는 3월 학기 초는 누구나 꿈과 기대에 부풀기 마련이다. 07학년 새내기들, 갓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들,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나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는 학생들처럼 학기 초에는 전 학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학생들이 새로 학교에 포함되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일년중 ‘새롭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신선하고 무언가 기대를 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불태운다.

이렇듯 우리는 학기 초에는 다른 시기보다 더 새롭거나 아닌 기존의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시도해야만 하고, 또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을 통해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모든 시도가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서려 할 때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시도도 못해보고 혼자 힘으로 할 때도 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자아성찰을 통해 이루어진 행동이나 성격의 변

화가 기존의 인간관계와 새로운 관계에 오해를 야기해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나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대학생활에서 원하고 추구하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 지금 나는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사람사이에서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고 그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보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는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 동기들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교수님과의 관계 등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공존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관계는 사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그 종류도 적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양한 관계적 요건을 갖고 있으며 또한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의 대부분의 관계들은 사회에 나가서 맺게 될 관계에 기초가 된

다. 그렇다면 위의 질문처럼 자신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관계적 기술, 관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및 행복들을 구체화 시킨다면 사회에 나가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관계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으며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의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도, 해결책도 없다. 이 문제의 최선책은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면 된다. 스트레스,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보다 적게 받는 법,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나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법, 지금 관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법. 이런 방법들로 관계를 이해하고 추구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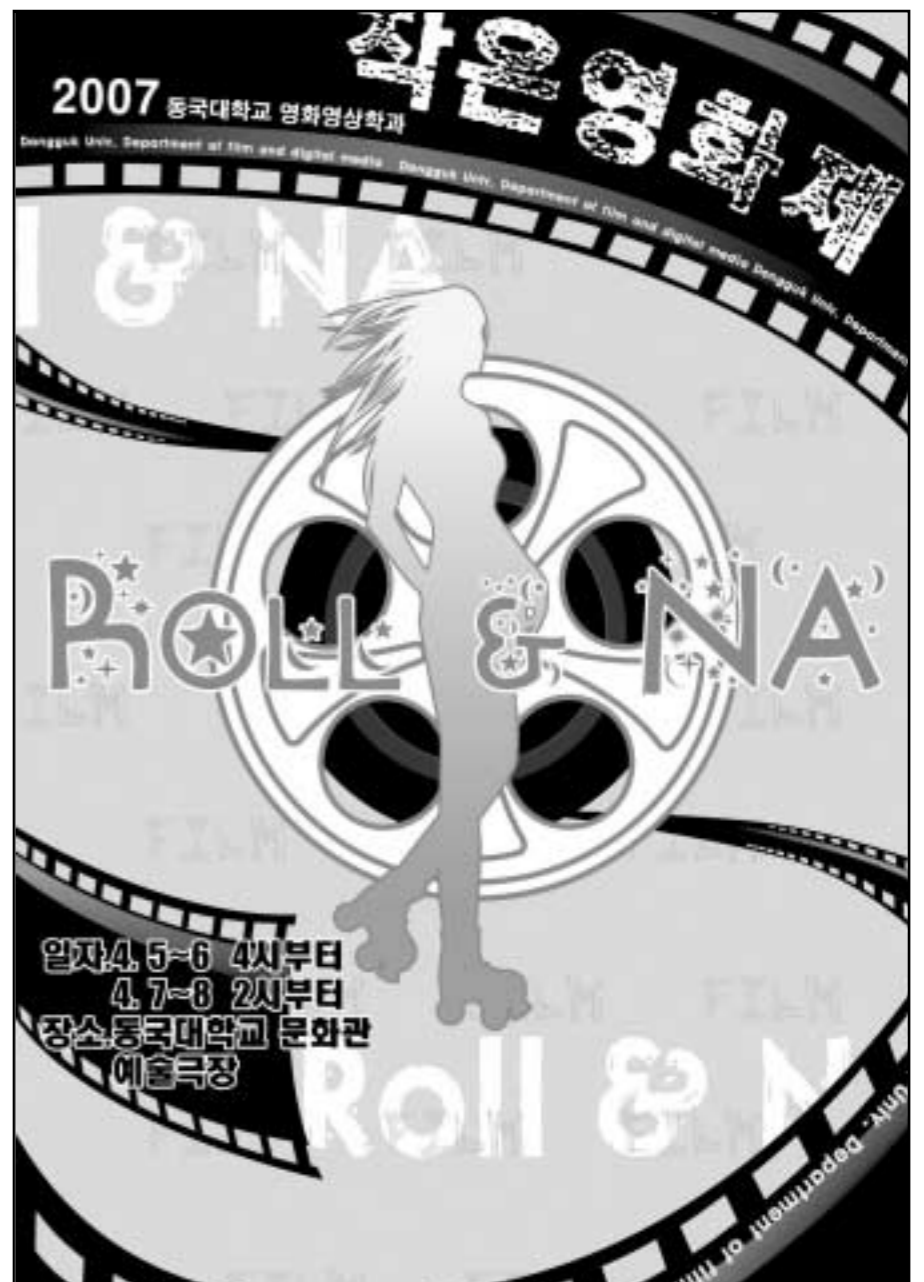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부분은 만약 어떤 관계로 인해 스스로 대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학생상담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심리검사와 상담 그리고 여러가지 집단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자신만의 생각이나 통제로 해결점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새 학기가 시작하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시기에 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의 관계가 어땠고 그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새로운 시작에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관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변 사람이나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전진상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만나고 싶은 동국인 - MBC 아나운서 김정근(경영 이졸) 동문

“아나운서여서 행복합니다”



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한 번 걸어볼 것을 다짐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가을에 시합을 치렀는데, 올해로 입사 3년 차다. 나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합격했을 당시의 기분은.
= 전화가 너머로 '김정근 씨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합격한 건가요?'라고 세 번을 되물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 몸이 붓 뜨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라서 폴짝폴짝 뛰고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굴렀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할 뿐이다. 이제껏 합격해 보았던 경험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 아나운서는 걸로 드러나는 것만큼 화려하지만은 않다. 방송시간 외에는 아나운서도 여느 직장인과 다를 것이 없고 봉급쟁이일 뿐이다. 자신의 방송시간에 따라 개인별로 일정이 다르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

아나운서는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의 전달자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전달하는 말의 전문가이다. 정확한 표준어와 억양, 끊어 읽기를 구사해서 뉴스를

편안하며 듣기 쉽게 시청자와 청취자들에게 전한다. 적당한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서비스 직업이기도 하다.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겁게 전달하고 스포츠 중계에서는 경기의 흐름을 더 쉽게 전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

- 아나운서임을 실감할 때는.
= 스튜디오 앞에 앉아있을 때, 2분 50초 짜리 라디오 뉴스가 끝나고 '김정근이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TV 뉴스데스크에 양복을 입고 앉아있을 때, 라디오 뉴스 부스 안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아나운서임을 깨닫게 된다.

'무릎'이 '를' '무릎'과, '닭'을 '달걀'로 읽고, '달라요'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 '틀려요'라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지적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가.
= 한마디로 '브랜드'가 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편안하게 다가 가고 프로그램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보고 싶

은 아나운서가 되기를 원한다. 친구, 아는 형, 동생, 아들, 사위 같은 인상을 주고 싶다.

서글서글한 눈매, 밝은 웃음, 푸근한 인상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외로 논매가 매섭고 카리스마가 있다. 손석희 선배님처럼 힘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냉철하고 비판력도 있는 모습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색깔을 덧입히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힘이 드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다.

-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꿈이 있으면 꿈을 흘려라'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일단 꿈이 있어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많은 경험을 하기를 권한다. 더불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저학년 때부터 어떤 직업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들과 같은 획일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 말고 나만의 무엇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라.

마지막으로 백년 전동의 사학인 동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싶다. 본인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

면 한도 끝도 없다. 현재 모습에 감사하면 자신감과 이득을 얻게 되고, 자신의 위치와 처사는 본인의 생각이 결정한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MBC '생방송 화제집중' 녹화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MBC 건물 5층의 F스튜디오를 찾아갔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카메라가 세 대나 있고 한쪽에서는 성우들이 해설을 준비하고 있다. '1분 전입니다', '30초 전입니다'라는 말이 들려오더니 곧 생방송이 시작됐다. 화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김정근 동문은 최현정 아나운서와 멘트를 맞춰보며 농담을 주고받는다. 김 동문을 만나 그가 말하는 아나운서와 그의 경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왜 아나운서가 되었는가.

= 대학시절 가장 즐거웠던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DUBS 아나운서를 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아나운서의 벽이 높다고만 생각했었다. 그 후 서른 살을 불과 두 해 앞두고 있었을 때 다니던 패션 회사에서는 나를 지방의 큰 매장으로 보내려고 했다. 고민을 거듭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



신문방송학과 소모임 '아메바'를 찾아

영상과 함께하는 목소리 마술사

'아름답게 메아리치는 바른 소리'에서 머릿글자를 따온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 소모임 '아메바'에 가면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김도형(신방2) 회장과 이제 막 소모임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는 박민아(사과대1) 양, 정동훈(사과대1) 군을 만나 '아메바'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아메바는 10년 전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출발했는데 초기에는 더빙작업으로 시작했지만 2004년부터는

라디오 방송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도형 회장은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녹음하고 편집할 때의 뿌듯함이 지금까지 아메바 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하나만 꼽아달라는 요청에 그는 이번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상영한 영상이라고 대답했다. 소심한 신입생의 학교 적응기를 다룬 '아웃사이더'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일본의 드라마 '전차남'을 각색한 것이다.

새터에서 반응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포털사이트인 엠엔케이

트의 추천 동영상 부문 1위에 올라서 어느새 조회수 일만 회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한 달 동안 매일 회의를 거쳐 고생스럽게 만들어 냈기에 보람도 그만큼 값졌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 현재 아메바는 매주 화요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 삼십분 동안 발성과 발음 연습을 하고 그 후 삼십분 동안은 연기와 편집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마지막 삼십분은 맡은 작품에 따라 편성된 조끼리 실제로 연습에 몰두한다. 최근에는 세미나가 너무 길어져 뒷풀이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이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세미나 중 가장 즐거운 때는 발성연습과 교육 시간 사이에 진행되는 '단문연습' 시간이다. 매주 다섯명이 각각 일본 분량의 대본으로 모두

앞에서 일인 연기를 한다. 정동훈 군은 "내가 맡은 인물의 성격이 느껴서 다들 자지러지게 웃었다"며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나니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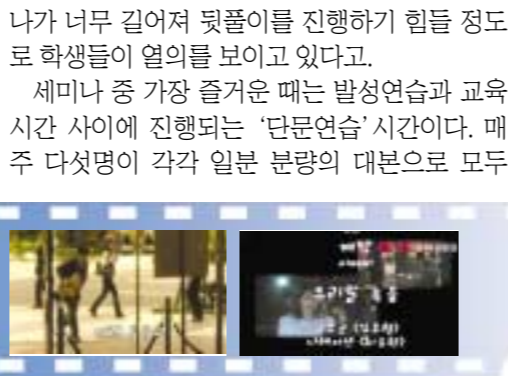
방송 MC를 꿈꾸는 박민아 양은 "소모임 활동을 하면 고등학교에서 하기 힘들었던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며 다음 주부터 진행될 녹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렇기하면 목소리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정동훈 군에게 김도형 회장은 "더빙할 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린 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메바는 앞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아나운서 소모임'이라는 타이틀 대신 '소리와 함께하는 방송소모임'이란 타이틀을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 도메인을 마련해 방송을 게재하고 온라인상에서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동약에서 뿐만 아니라 넓디넓은 인터넷 세상에서든 가깝게 만나 볼 수 있을 아메바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메아리칠 거 기대해 본다.

문서영 기자
syoo@dongguk.edu



인물동정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 이사에 김무곤 교수 선임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무곤 교수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는 개정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 자율경영구조 정착, 공기업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제를 도입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임기는 지난달 16일부터 2010년 3월 15까지 총 3년이다.

박영석 동문

에베레스트 신 루트 개척 나서

우리학교 박영석(체교 91졸) 동문이 지난달 31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신 루트 도전에 나섰다. 이번 도전은 고상돈 씨의 에베레스트 등정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이다. 등정이 성공한다면 에베레스트에 '코리안 루트'가 생긴다. 원정의 전 과정은 다큐멘터리영화로 제작 될 것이며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된다.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커리어에 관해 진로 및 취업방향을 제시하고 고학년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하고자 1학기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을 계기로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내 후배 사랑 300억조성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월 3만원이면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자는 모교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